



## 수출신용기관

### ◆ 미수은의 'One-Stop Shop' 제도 운용 현황

미수은은 자본재 수출의 대형화와 global sourcing 추세에 따라 미국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국가가 동일 수출거래에 참여하는 경우 수입자에게 단일 금융패키지를 제공함으로써 미국 수출기업의 금융경쟁력을 제고하려는 목적에서 2001년부터 'One-Stop Shop' 협조금융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One-Stop Shop 협조금융은 2개 이상의 국가가 단일 수출거래에 참여하는 경우 수출비중이 가장 큰 국가의 ECA(lead ECA)가 전체거래에 대하여 수입자와 금융계약을 체결하고, 자체 지원기준 및 절차에 따라 documentation, 자금지출 등을 책임지며, 대외위험수수료 수준이 여타 ECA (follower ECA)와 다른 경우에는 상호 협의 하에 조정(blending)하여 단일요율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수은이 lead ECA인 경우에는 자국 수출분에 대해서는 Foreign Content Policy 및 Local Cost Policy<sup>1)</sup>에 따라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전체 수출거래에 대해 협조금융 지원확약서(Cofinancing Letter of Interest)를 발급하며, 협조금융 지원확약서에는 follower ECA로부터 미수은이 전체 수출거래에 대해 지원하도록 위임을 받았다는 사실을 명시한다. 미수은이 follower ECA인 경우에는 미수은은 자국 지원금액에 대해서만 금융지원 의향을 표명하는 서한(Financial Commitment)을 lead ECA에게 제공한다.

미수은은 한국수출입은행, 영국 ECGD, 캐나다 EDC, 이태리 SACE, 일본 NEXI, 프랑스 Coface, 노르웨이 GIEK, 덴마크 EKF, 이스라엘 Ashr'a, 헝가리 수은 등과 One-Stop Shop 계약을 체결하였다.<sup>2)</sup>

미수은의 경우 One-Stop Shop 계약 체결 없이 건별로도 협조금융 지원이 가능하며, 2004 회계연도 중 총 13건, 12억 달러의 협조금융을 승인하였으며, 이 중 항공기 수출에 6억 6,700만 달러를 지원하였다.

【김 재 철, 워싱턴사무소】

1) Foreign Content Policy는 미국산 및 수출계약금액의 85% 중 작은 금액을 지원토록 하는 정책이며, Local Cost Policy는 수출계약금액의 15%까지 현지비용을 지원토록 하는 정책임. One-Stop Shop 협조금융 시에는 미국 국적 선박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미국산으로 인정하는 U.S. Flag Vessel Policy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ECGD, EDC, SACE, NEXI와는 포괄적 One-Stop Shop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한국수출입은행과는 화물 항공기 수출에 대해 협조금융 계약을 체결하였다.